회원기고

서학(西學) 중국기원론



金永植 會員 (과학사)

다른 사람의 물건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흔히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의 차원에서도 제기되는데, 그 한 가지 예가 17, 18세기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서학중원론(西學中源論)"이다.

1.

17, 18세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관념과 지식에 접해서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그에 대해 "서학중원론"으로 대처했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당시 중국에 들어오고 있던 여러 가지 서양 과학 지식이 고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믿었다. 고대 중국의 황금기에 중국인들이 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대에 그것이 서양 "오랑캐"의 손에 들어갔고 그 후 중국에서는 사라진 지식을 서양인들이 발전시켜 다시 중국에 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중국 기원"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 곧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고 일단 퍼져 나간 후에는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19세기 후반의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서양의 개념이나 지식의 중국 기원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로는 여러 이름이 거론된다. 방이지(方以智, 1611-1671), 황종희(黃宗羲, 1610-1695), 강희(康熙) 황제(재위 1662-1722), 매문정(梅文鼎, 1633-1721) 등이 가장 흔히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 외에 웅명우(熊明遇, 1579-1649)나 왕석천(王錫闡, 1628-1682)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중국의 기원이 거론된 서양의 개념 중 대표적인 것이 "지구(地球)" 개념이다. 많은 17세기 중국 학자들이 고대 중국의 문헌, 특히 『주비산경(周髀算經)』에서 지구 개념의 기원을 찾았다. 다른 서양의 우주론적 개념에 대해서도 고대 중국의 기원이 자주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지전(地轉)" 개념의 기원으로는 고대 중국의 "사유설(四遊說)"이, 그리고 "천구(天球)" 개념의 기원으로는 『초사(楚辭)』의 "구중(九重)"이라는 표현이 거론되었다. 이 같은 우주론적 개념 이외에, 서양 천문학 자체가 고대 중국의 역법(曆法)에서 기원했고 후에 유럽을 포함한 여러 변방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이야기되기도 했다. 서양 천문학의 중국 기원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강희제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 후 『어제수리정온(御製數理精蘊)』(1721년 간행)이나 『명사(明史)』 "역지(曆志)" (1739년) 같은 정부 간행 천문역법 서적에 실리게 되어 19세기 초에 이르도록 정부와 학자들이 받아들인 정설(定說)이었다.

수학적 개념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대 중국의 기원이 찾아졌다. 황종희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서양의 기하학과 측량법이 고대 중국 『주비산경』의 구고(句股)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간주했다. 서양 수학의 다른 개념들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기원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방중통(方中通, 1633-1698)은 구고법의 기원을 하도(河圖)로까지 거슬러 올렸는

데, 낙서(洛書)에서 “가감승제(加減乘除)”의 산술적 연산법의 기원을 찾았다. 매곡성(梅穀成, 1681-1763)과 강희제 등은 서양의 대수학이 고대 중국의 “천원술(天元術)”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천문학이나 수학적 지식 이외에도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대 중국의 기원이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호위(胡渭, 1633-1714)는 서양 점성술이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으며, 완원(阮元, 1764-1849)은 고대의 물시계(漏刻)가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던 서양 자명종(自鳴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했고, 19세기의 모상린(毛祥麟)은 서양의 외과 수술 기법이 중국 고대의 전설적 명의(名醫)인 화타(華陀)의 의술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2.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기원론을 주장하면서 제시된 논거들은 억지스러워 보이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기원론이 주장되던 당시에도 그 같은 문제가 있음이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기원에 대한 생각이 출현하고 받아들여진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결코 그렇게 이상하거나 억지스럽거나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외부의 다른 문화로부터 새로운 관념이나 물건을 받아들일 때, 특히 그것들을 자신들의 문화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로부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지어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이질적인 외래의 관념이 사실은 자신의 문화에서 기원했다고 인식하는 일은 그 외래의 관념을 동화(同化)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과 다른 외래의 관념에 접했을 때, 특히 그 같은 외래의 관념이 자신의 전통에서 볼 때 야만스럽거나 부적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 단순히 번역만 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전통에 연결시키고 동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인데, 자신의 문화의 고대 황금기에서 그 같은 외래 관념의 기원을 찾게 된다면 이는 아주 효과적인 “동화”의 방식이 될 것이겠기 때문이다.

외래의 문화적 요소들--개념 이론, 물건--을 받아들임에 앞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외래의 개념과 이론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들이는 쪽 문화의 개념과 이론들을 통해 그것들을 보아야만 한다. 일종의 “번역(translation)”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번역”--언어를 통해서든 사고를 통해서든--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외래의 문화적 요소들과 자신들의 문화적 요소들 사이에 유사성을 보게 된다. 17세기 중국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당시 중국에 들어오고 있는 서양의 개념들과 중국의 것들 사이의 유사성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서양과 중국의 관념들 사이의 위와 같은 유사성에 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기원을 지닌다고, 즉 어느 한 곳에서 기원해서 다른 곳으로 전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같은 유사성에 접해서 중국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설명 한 가지는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같은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이 서로 다른 곳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회 신부들의 책들과 중국의 고대 문헌들의 내용에서 보는 유사성들에 대해 이처럼 설명하면서 중국인들이 사용한 표현은 “심동리동(心同理同: 사람들의 마음이 한가지이고 따라서 리(理) 또한 한가지이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개념들이

나 물건들이 하나의 동일한 기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비록 논리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위의 "심동리동"이라는 생각과 "동일 기원"이라는 생각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면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심동리동"이라는 관념이 중국기원론이 널리 받아들여진 후에도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기원론자였던 매문정이 서양과 중국의 수학이 하나임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 기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 가지 대안들이 가능했다. 1) 서양 기원, 2) 중국 기원, 3) 그 외 다른 지역의 기원.

이 세 가지 대안들 중 굳이 공동의 단일한 기원을 찾아야만 한다면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기원을 찾을 것이 당연했다. 중국 기원에 대한 믿음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중화(中華)" 문명의 탁월성과 보편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확신이다. 사실 자기 전통, 특히 유가 전통의 우수성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물론 정통 유학 이론과 믿음들에 대해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같은 반항자들까지를 포함해서 누구도 중국 문화의 근본적인 탁월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지니지는 않았다. 학문, 사회제도, 도덕적 가치, 심지어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명의 모든 영역이 오랑캐들이 거주하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그것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여겨졌다. 매문정 같은 사람마저도 모든 언어들 중에서 중국어만이 제대로 된 어순(語順)을 가진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했다. 매문정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한 후 중국에 온 서양인들도 중국 문명만큼 우수한 문명을 보지 못했다고 실제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문명의 보편성과 탁월성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치있는 모든 것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생각으로 쉽게 이어졌다. 서양 천문학과 중국 천문역법의 종합을 시도한 『역학회통(曆學會通)』(1662)의 서문에서 설봉조(薛鳳祚, 1600-1680)는 문화, 예(禮), 음악이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뒤질 수 있는가 반문하기도 했다. 중국인들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이 같은 믿음은 외국인들의 기록에서도 자주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한 가톨릭 신부는 어느 중국인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들의 종교는 우리 문헌에 실려 있지 않는 이방의 종교입니다. 과연 중국의 바깥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대 성인들의 시기 중국의 문명이 최고에 달해 있었다는 믿음 또한 중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중국기원론의 형성과 수용에 기여했다. 고대 중국 문명의 우수성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중국 문화의 우월함에 대한 중국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중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서양의 과학 지식이 사실은 문화의 황금기였던 고대 중국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 주었다.

한편, 고대 황금기의 완벽한 지식에 대한 믿음 안에는 그것이 그 이후에 쇠퇴했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대의 완벽한 지식이 후대에 쇠퇴했다는 이 같은 믿음은 중국기원론 신봉자들에게 당초 중국에서 기원했던 서양의 천문학 지식이 자신들의 시기에 이르러서 중국 역법의 수준보다 더 우월하다는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 서양인들이 중국 고대의 완벽한 천문학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데 반해 중국인들은 오히려 그 같은 고대의 지식을 잃었고 따라서 천문역법이 쇠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믿음에 바탕해서 고대 문헌들의 몇몇 구절

들이 고대 중국의 지식이 주변의 오랑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으로, 실제로 전래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화중(和仲)에게 따로 명해 서쪽에 살도록 했다(分命和仲宅西)"라는 구절은 요 임금이 화중(和仲)을 서방 지역으로 파견했고 그가 그곳에 중국 역법을 전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좌전(左傳)』의 "천자가 다스림을 잃자 학문은 네 오랑캐들에게 있게 되었다(天子失官, 學在四夷)"는 구절은 중국의 제도가 쇠퇴한 후 제대로 된 지식이 그것을 전해 받은 오랑캐들 사이에서 발견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서학중원론은 중국인들에 의해 주로 서양 과학 지식의 수용을 옹호하는 논리로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1630년경 서학중원론은 숭정(崇情) 개력을 추진하던 사람들의 공식 입장이 되다시피 해 있었다. 그리고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중국 학자들은 서학중원론과 함께 공자(孔子)가 오랑캐 담자(郯子)에게서 배웠다는 『좌전』의 유명한 구절(仲尼聞之, 見於郯子而學之)이나 "예(禮)가 사라지면 그것을 오랑캐들에게서 구한다(禮失求諸野)" 라는 공자의 이야기 등을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서학중원론이 서양 과학 지식의 수용을 정당화해 주는 논리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여러 다른 맥락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는 서학중원론을 청 왕조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했다. 중국이 잃어버린 고대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여 발전시켜 온 서양인들로부터 역법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 황실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만주족 왕조인 청의 황제로서 그가 자신이 중국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보이는 일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재위기간 동안의 그가 추진한 여러 학술, 편찬 작업 전체가 고대 중국의 성인들을 본받는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황종희, 방이지 같은 명의 유신(遺臣)들은 원래 중국의 성인들로부터 유래한 것을 서양의 오랑캐들로부터 받아들인--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청 왕조를 깎아내리는 데에 서학중원론을 사용했다.

중국의 전통 역법을 고수하고 서양 천문학의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중국기원론에 바탕해서 서양 천문학을 깎아내렸다. 예를 들어 왕석천은 서양 천문학의 여러 요소들이 "중국의 구법에 갖추어져 있고 ... 서양인들이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을 절취(竊取)했는데, 어찌 그들이 [중국 역법]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왕부지는 서양인들로부터 취할 만한 것은 원근측법 한가지일 뿐 그 외에는 모두 중국에서 표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 천문학을 반대한 사람들은 서양 천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서학중원론에 기여한 면도 있었다. 서양 천문학에 대한 중국의 기원을 찾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외래의 것들의 기원을 자신들의 과거 전통에서 찾는 경향은 17세기 중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역사상 많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같은 경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었다.

또한 이렇듯 외래의 것들에 대해 중국의 기원을 찾는 경향이 17세기에 처음 나타난 것도 아니었으며, 비슷한 태도를 중국 역사상 외래문화의 요소들이 들어왔던 다른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

국인들은 불교, 마니교(Manicheism), 유대교, 네스토리우스교(Nestorian Christianity), 이슬람교 등 중국에 들어온 거의 모든 외래의 종교의 기원을 중국의 전통에서 찾았다. 특히 불교가 노자(老子)에서 기원했다는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미 AD 166년에 한(漢)의 환제(桓帝)에게 제출된 상소(上疏)에는 "노자가 오랑캐들에게 들어가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주희(朱熹, 1130-1200)마저도 불교의 관념 중 많은 것들이 "노자와 장자(莊子)를 표절했거나 열자(列子)에서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장자의 여러 견해가 공자의 제자들로부터 얻은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 중 좋은 것들은 모두 장자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다. 기독교가 불교에서 기원했다는 믿음도 있었다.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지식과 물건들에 대한 기원을 고대 중국에서만 찾았던 것도 아니었다. 때로는 더 가까운 시기의 관념들이 서양 지식의 기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방공소는 서양의 지구와 천구 관념의 기원을 『황제내경(黃帝內經)』, 『주비산경』, 『초사』 같은 고대의 문헌만이 아니라 소옹(邵雍, 1011-1077), 심괄(沈括, 1031-1095), 주희 같은 송대 학자들의 저술에서 찾았다. 많은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학자들--황백가, 강영(江永, 1681-1762), 김만중(金萬重, 1637-1692), 김석문(金錫文, 1658-1735), 홍대용 등--은 장재(張載, 1020-1077)의 『정몽(正蒙)』과 주희에서 "지전(地轉)" 개념을 읽어냈다.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서양 역가들이 장자(張子)의 좌선설(左旋說)을 표절해서 이론을 세웠다"고까지 이야기했다.

중국 고대에서 기원을 찾아내는 일이 외래의 관념이나 지식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었다. 사실 원래 중국의 학자들은 고대의 문헌을 찾아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지구설을 둘러싼 논쟁에서 "평평한 땅"을 주장했던 쪽이나 "지구"를 주장했던 쪽이 모두 고대의 문헌들에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찾아냈다. 천구 개념에 대한 논쟁은 혼천론(渾天論), 개천론(蓋天論) 및 구중천(九重天)에 관한 논의와 연결됨으로써 중국 우주론 전통 내부의 논의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했다.

고대 중국인들도 때로는 자신의 견해의 기원을 자신들보다 더 앞선, 따라서 더 신성한, 고대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BC 1세기로 보이는 『황제내경』의 저자들, 또는 편찬자들은 자신들의 책에 먼 고대의 전설적 "황제(黃帝)"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려 했으며, '황제'의 이름은 『주비산경』 같은 그 외의 책들에도 등장했다. 『산해경(山海經)』은 우(禹) 임금과 연결 지어졌다. 자신들의 책을 더 먼 고대의 성인의 이름과 연결 지음으로써 이들 고대의 저자들이나 편찬자들이 꾀했던 것은 그 책들에 "고대의 권위"를 부여하여 수학이나 의학과 같이 주변부에 속한 그 책들의 주제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

청대 중국기원론을 주장한 많은 학자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 학문세계에서 주변부에 속했던 천문학과 수학과 같은 분야들을 중국 고대의 경전들과 연결지음으로써 그 분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했던 것이다. 다만 이들 청대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분야들이 지닌 주변부적 성격이 이중적이었다는 점에서 고대의 저자들과 달랐다. 그것들은 전통적 유가 학문에서의 지위가 부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오랑캐들로부터 온 지식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중국의 고대 전통 속에서 이들 분야의 지식의 기원을 찾는다는 것은 이 같은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그 분야들의 지위를 높여서 학자들 사이에 받아들일 만한 분야가 되게 하는 데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중국 학자들이 고대 중국에서 찾아냈던 "기원"은 서양의 지식 자체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오랑캐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여기는 태도의 기원까지도 고대에서 찾아내었다. 웅명우, 방이지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서양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을 공자가 오랑캐 담자에게서 배웠다는 위에 언급한『좌전』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에 비교했다. 서광계(徐光啓, 1562-1633) 등은 과거 중국이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들였던 것을 서양의 천문학을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개력(改曆) 작업의 전례(前例)로 제시했다. 서양인들처럼 물리(物理)를 중시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풍토가 상고(上古) 성인들의 전통이라고 본 방이지나, 중국에서도 고대에는 오늘날 서양처럼 학자들이 천문역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조선의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태도도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의 관념에 대해 자신들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은 중국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도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기 유럽의 기술자, 장인(匠人)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지식과 실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기의 문헌들에서 찾았다. 중세 아랍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별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랍의 과거 문헌에서 그것들에 해당하는 아랍어 이름들을 찾아냈다. 아랍인들로부터 받아들인 고대 그리스 과학과 학문을 외래문화로부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대 황금기의 유산으로 생각한 중세 유럽인들도 본질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태도는 기독교 이전 고대 그리스의 문헌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찾았던 르네상스 시기의 기독교도 인문주의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사실 고대에 황금기가 있었다는 생각은 서양 과학이 도입되던 시기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상 모든 시기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중국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 유럽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흔한 생각이었던 것이다.